

세 차례 자유토론과 세 차례 투표 끝에 전인권의 《남자의 탄생》에 ‘올해의 책’ 영광 안겨

‘올해의 책, 올해의 저자’ 선정 심사위원 명단

- 허연(매일경제 문화부 기자)
- 고영수(〈출판저널〉 편집위원)
- 유윤중(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 송영만(〈출판저널〉 편집위원)
- 조진호(굿데이 문화부 기자)
- 임성규(〈출판저널〉 편집위원)



〈출판저널〉이 지난 2월 재창간과 함께 의욕적으로 전개해 온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를 결산하기 위해 마련한 2003년 ‘올해의 책, 올해의 저자’ 선정 심사위원회가 지난 11월 21일 〈출판저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심사는 2003년을 대표할 책과 저자를 뽑는다는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를 〈출판저널〉 기자들의 시각으로 뽑았던 것에서 탈피해 6명의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위원들에게 11권의 책을 미리 전달하고 이날 합석 심사를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심사위원들은 먼저 심사방법을 논의한 끝에 후보도서에 대한 인상을 개진한 후 3권씩의 최종후보를 적어 압축된 책에 대해 자유토론을 재개하자는 데 합의했다. 또한 이들 압축된 책에 대해서는 득표에 따른 순위를 매기지 않고 역시 자유토론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는 각각의 심사위원이 3순위로 추천한 책이 다득표에 의해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는 ‘다득표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섬세한 접근에 따른 것이었다.

1차 심사에서는 11권의 후보도서 중 8권의 책이 1표 이상의 추천을 받았으며, 이들 책에 대한 자유토론 결과 심사위원들은 1명의 추천을 받는 데 그친 3권의 책을 후보도서에서 제외시키자는 2차 합의를 도출했다.

심사위원들은 3차 자유토론을 통해 5권의 책이 갖고 있는 덕목을 미세한 부분까지 개진한 후 최종 추천도서 목록을 2권으로 압축했다. 2권의 목록은 시인 허만하 선생의 순도 높은 에세이집 《길과 풍경과 시》, 소장 정치학자 전인권 선생의 대중적 인문 사회학 저술인 《남자의 탄생》이었다. 심사위원들은 두 권의 책에 대해 다시 난상토론에 가까운 자유토론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덕목뿐만 아니라 두 권의 책이 갖고 있는 편집상의 장단점, 저자들의 정신적 깊이, 〈출판저널〉이 지향하는 좋은 책의 기준 등에 대해 거침없는 의견을 전개하면서 투표에 의한 선정을 피하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각각의 책에 대한 주장이 팽팽히 맞서 투표를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했다.

첫 번째 투표용지에서는 《길과 풍경과 시》가, 두 번째 투표용지에서는 《남자의 탄생》이, 세 번째에서는 《길과 풍경과 시》가, 네 번째에서는 《남자의 탄생》이 나왔다. 이날 심사에 불참하면서 3권의 책을 추천하고 그 결과는 심사위원회에 일임한다는 위임장을 제출한 임성규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투표용지는 단 한 장이었다. 심사위원들이 일순 긴장한 가운데 펼쳐진 투표용지에는 《남자의 탄생》이 찍어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투표까지 이르는 과정에서는 서로의 주장이 관철되기를 강력히 원했으나 투표결과가 밝혀지자 박수를 치는 것으로 흔쾌히 전인권의 《남자의 탄생》을 ‘올해의 책, 올해의 저자’로 선정하는 데 동의했다.

이날 심사진행은 〈출판저널〉 기자들을 대표해 임동헌 주관이 맡아 11개월 동안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를 선정한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각각의 책과 저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올해의 책, 올해의 저자’ 전인권 씨에게는 선정패와 함께 200만 원의 집필지원금이 수여된다. ☞

사진 박신우 기자